

마한 최고 수준 토목기술 입증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발굴조사 성과… 국내 최초 토남 격자망·성벽 축조공법 결합 확인

고창군이 마한 최대 규모의 분구묘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의 3차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3차 발굴조사는 2023년 1차, 2024년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고분 사면부의 성토 양상과 외곽 시설 조사에 이어, 마한 최대급 분구묘의 성격과 축조기술을 규명에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국내 최초로 토남(土囊) 격자망 공법과 성벽 축조 공법이 결합된 초대형 고분 축조기술이 확인된 점이다. 이는 서로 다른 토목 공법과 작업 단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축조 방식으로, 당시 고창 지역 지배세력이 대규모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역량과 토목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고분 중심부에는 석실묘나 석곽묘 등 일반적인 매장주체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분군 전체를 상징하는 대규모 의례적 묘역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분구 중앙부를 향해 대각 방향으로 넓혀 매납한 대형 발형기대(그릇받침)와 옹편 등이 출토되면서, 거대한 고분 축조 과정에서 제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은 단순한 장례 공간을 넘어 당시 마한 사회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의례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 성과는 고창 지역이 마한의 유력한 정치세력인 모로비리국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학술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1500여년 전 마한 사회의 토목기술과 사회 조직체계, 의례문화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복지국장은 “이번 3차 발굴조사는 1,500년 전 마한인들의 뛰어난 토목 공학 기술과 조직 역량을 입증한 매우 뜻깊은 성과다”며 “발굴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추진될 고창 봉덕리 고분군 학술 정비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고, 고창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조사대상지 조사완료 직상(남동→북서)

‘길 위의 인문학’ 무료 참가자 모집

삼천생활문화센터, 성인·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삼천생활문화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성인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2개가 모두 선정되면서 무료 참가자를 모집한다.

삼천생활문화센터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인 ‘공간 실험실, 집을 읽다 삶을 담다’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모모의 시선 도둑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인 프로그램인 ‘공간 실험실, 집을 읽다 삶을 담다’는 건축인문학을 중심으로 문화와 미술, 토론, 현장 탐방 등을 접목한 융복합 인문 프로그램이다. 오는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청소년 프로그램인 ‘모모의 시선 도둑들’은 7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화와 시나리오를 활용한 영상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운영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삼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와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원주문화관광재단, 물놀이 공예체험터 개최

원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한문화지구 누에 일원에서 ‘2026 원주 공예 오픈 시즌마켓-물놀이 공예체험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와 공예를 결합한 가족 참여형 문화행사로, 지역 공예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문화축제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이동식 풀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아이 물놀이존이 상시 운영되며,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가족들은 다양한 공예체험과 플라마켓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공예작가와 함께하는 11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름을 주제로 한 생활공예를 직접 만들며 공예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천연 모기퇴치제, 린넨 컵슬립, 마크라메 화분행잉, 텀블러 스트랩, 천연 염색 스카프, 라탄 티코스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마련됐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며, 참가자에게는 행사장 내 실마리카페 할인쿠폰도 제공해 행사장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국악으로 물드는 한여름 밤의 낭만’

전주시립국악단 제249회 정기연주회 ‘몽환’ 23일 개최

전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심상욱)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49회 정기연주회 ‘몽환(夢幻)’을 한여름 밤의 낭만’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여름밤의 낭만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무대로, 성악과 판소리, 대피리 협연을 비롯해 창작 초연작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국악관현악 ‘한 여름밤의 모음곡’으로 문을 연다. 강술일 작곡의 ‘Sky High’와 이정호 작곡의 ‘Awesome’을 통해 여름밤의 생동감과 시원한 에너지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표현한다.

이어 이지영 작사·작곡의 ‘성악과 함께하는 낭만적 선율’이 무대에 오른다. 소프라노 조수빈과 바리톤 이창범이 ‘TO YOU’와 ‘따뜻한 세상을 부르는 오늘날’을 들려주며 아름다운 화음과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강술일 작곡의 대피리 협주곡 ‘술탄의 정월’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박혜민이 대피리 특유의 깊고 웅장한 음색을 통해 이국적인 정취와 화려한 선율을 선보인다.

또한 이날 공연에서는 소리꾼 김도현이 참여하는 ‘한바탕 놀아보세’ 무대도 펼쳐진다. 편곡 작품 ‘광대가’와 판소리 협주곡 ‘공명탈출’을 통해 판소리의 흥과 국악관현악의 역동적인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마지막은 풍나온 작곡의 창작 국악관현악 ‘별바다 (가제)’가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서 초연되는 작품으로, 한여름 밤하



늘과 바다의 신비롭고 몽환적인 풍경을 국악관현악으로 그려내며 창작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과 성악,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한여름 밤의 낭만과 감동을 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국악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창작의 매력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일반 5000원, 학생(초·중·고) 및 단체(20인 이상) 3000원으로, 나루툴쳐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카드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북마켓 출판사 모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출판사들이 오는 10월 전주에서 독자들과 만난다.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오는 10월 전주에서 펼쳐지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북마켓에 참여할 전국 30개 그림책 출판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문화축제인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참여한 출판사들은 행사 기간 그림책을 10% 할인 판매하고 강연과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그림책도서전에서는 작가 초청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한 출판사에 각각 30만 원씩 지급되는 운영 지원금 지원 대상이 기존 10개 출판사에서 20곳으로 확대 지원된다. 단, 참여업체가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지 않을 경

우 도서 판매만 진행할 수 있다.

북마켓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0-1813)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참가 출판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도서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세계 각국의 그림책이 모이는 자리에 많은 출판사 관계자가 함께 교류하고 시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도서전은 대한국의 지미 리아오, 한국의 김동성 작가를 초청하고, ‘Picturing the Memories(기억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